빛가람혁신도시 '빈 상가' 해법 찾기 주목

과도한 인허가 6천개 중 70% 공실
나주,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추진
상업용지 비율조정·청년창업 활용

민선 8기 나주시가 혁신도시 내 공실률 해소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14일 나주시와 나주시장직인수위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가 자리한 빛가람동의 상가수는 5,943개이며 공실률은 60~70%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공실률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으로 상가를 생활용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전남도의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과도한 상업용지 비율 조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도 나설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는 상가 신축과 관련해 허가조건을 강화하고, 상가 임대현황을 실시간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4일 남악 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1기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

이와 함께 중단기 지원대책도 만들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청년창업과 연계한 창업공간 임차비를 지원하고 혁신도시에 입주한 16개 공공기관, 한국에너지공대, 상가협의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담지원부서도 설립할 방침이다.

또 혁신도시와 인근 혁신산단 등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재직자를 위한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지원하고, 유명학원 분원 유치나 착한 임대료 정책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한국감정원이 혁신도시 1인당 상가면적을 분석한 결과 빛가람혁신도시는 28.1㎡로 김천 8.2㎡, 대구 9.1㎡, 원주 8.9㎡ 등 다른 혁신도시보다 무려 세 배나 높다.

이는 지난 2013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주상복합용지가 상업용지로 탈바꿈하면서 예견된 결과였다. 여기에 클러스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용지를 30%까지 허용하면서 상가 공급과잉을 불러왔다.

이와 관련해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LH 등 혁신도시 개발 3사가 미분양용지를 해소하기 위해 당초 토지이용계획과는 다르게 땅장사로 쪼개고 바꾼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가족단위 정주인구가 늘지 않는 한 혁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는 풀기 어려운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인 공공기관 이전 시즌2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족형 10만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출·퇴근 눈치, 야근 압박 불편합니다"

김 지사, MZ세대 정담회

김영록 전남지사는 14일 MZ세대 공무원과 함께하는 '청렴정담회'를 열고 조직 내 불공정한 관행 근절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열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김 지사와 직원들은 청렴과 공정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진정한 의미의 세대 간 공존을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MZ세대 공무원들은 직급·세대 간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유형의 갈등과 부패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의견도 전달했다.

또 출·퇴근 눈치, 업무(야근) 압박, 일과 후 식사 강요 등 불공정한 관행 문화의 근절을 요구하며, 중간직급(세대)의 도움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밖에 업무 수행과정, 일하는 방식과 복무환경 등에 대해 그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현실진단과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세대 간, 직급 간 서로 화합하면서 톱니바퀴 돌 듯 맞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MZ세대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각자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동시에 공정성을 지키려는 청렴한 자세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MZ세대 직원 대상 청렴 정담회를 중간직급(5~6급), 공무직, 청원경찰을 대상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근산 기자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연임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14일 도당 회의실에서 제5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김화진 현 도당위원장의 연임을 의결했다.

도당위원장 후보자 공모에 김화진 위원장이 단독으로 등록했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당 규정에 따라 이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도당 운영위원회는 전남 당협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을 비롯한 운영위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 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을 만들어주신 전남도민 성원과 열악한 정치 환경에서도 당을 지켜주신 당원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전남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어르신이 행복한 전남을 위한 대선 공약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당과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최고위원 출마 송갑석, 민주 광주시당위원장 사퇴

18일 후보 등록…선거 채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이 후보 등록에 앞서 당규에 따라 15일 시당위원장직을 사퇴한다.

송 위원장은 "4년간 아낌없는 성원과 건강한 비판으로 광주시당을 함께 이끌어주신 시민과 당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호남 대표 최고위원 후보로서 반드시 당선돼 정권을 되찾기 위한 광주의 강한 열망이 전국으로 뻗어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온몸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당위원장직은 내려놓지만 지역 발전과 직결된 수많은 난제를 광주공동체와 함께 노력하며 풀어나갔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차기 위원장이 성공적으로 광주시당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8월 20대 국회 광주지역 유일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시당위원장직을 맡아 21대 국회에서 연임한 송 위원장은 임기 4년간 5·18 3법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광주형일자리법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을 추진력있게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과 광주·전남, 전북이 함께 하는 호남권 최초 경제공동체 프로젝트인 RE300을 비롯해 서구 도심융합특구와 북구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선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상 최대 국비 확보 등도 성과로 꼽힌다.

송 의원은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호남 단일 후보이자 비수도권 유일 후보로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길용현 기자

박용진 "연전연패 장수가 패배 기운 싹틔워"

이재명, 당대표 출마 비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하는 박용진 의원은 14일 "졌잘싸(졌지만 잘 싸워)란 미명 아래 연전연패한 장수가 또다시 민주당에 패배의 기운을 싹틔우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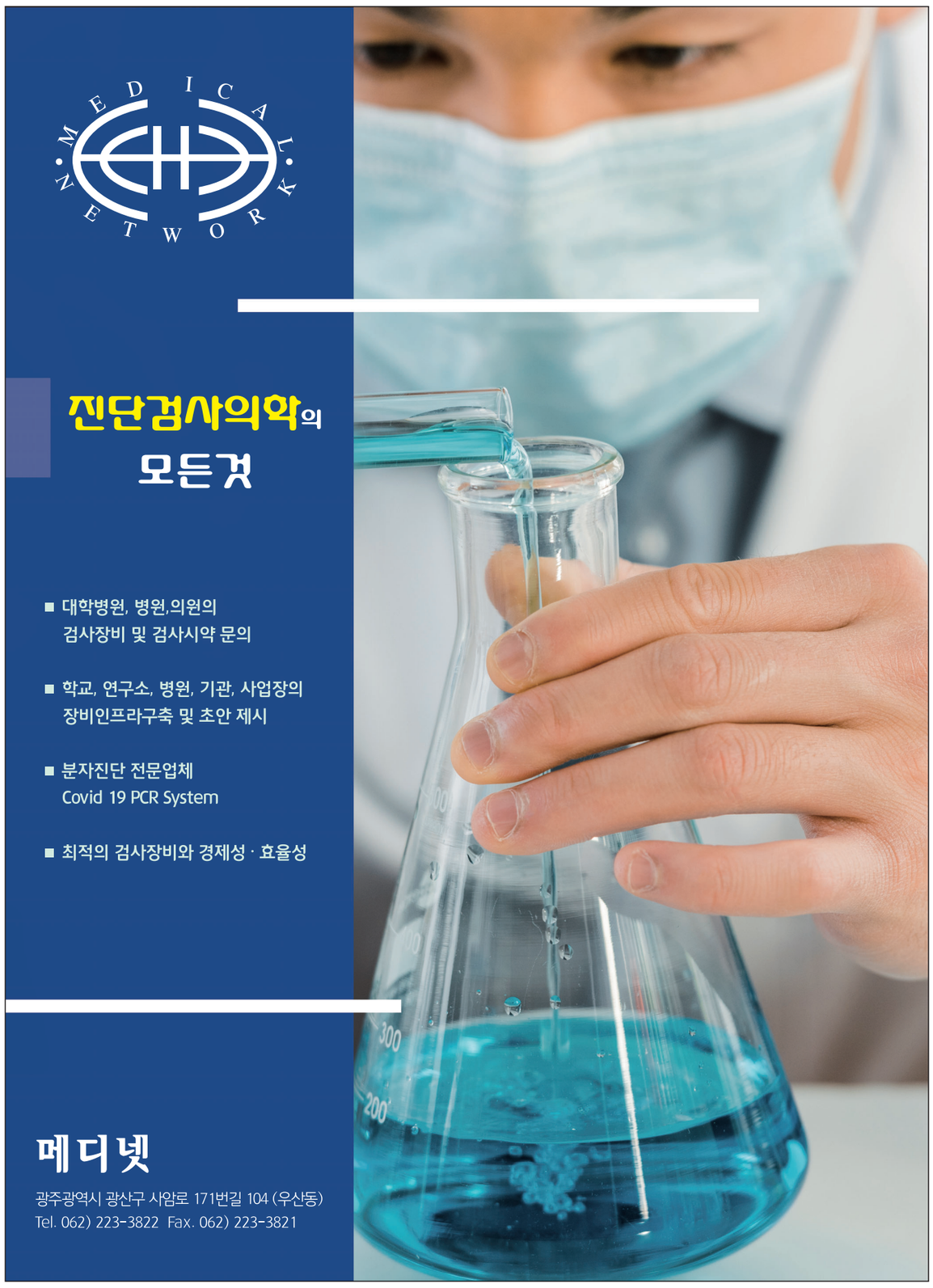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상임고문의 당 대표 도전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방탄용 출마와 사법 리스크란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며 "정치 보복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 정권에 약점 잡히지 않고, 결연히 싸워나갈 수 있는 민주당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이 고문의 도전을 거듭 반대했다.

이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절망적 체념으로 드리운 민주당의 위기는 민주당의 가치와 시대정신의 위기"라며 "어대명이라는 막다른 골목과 안방 대세론의 절망적 체념에서 벗어나 민주당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파 없는 박용진은 이재명과 협력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를 계승하겠다"며 "친문과 함께 하고 친명과 협력할 수 있는 모두의 당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의 전략적 선택이 민주당,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당당한 미래, 밝은 미래로 이끌 수 있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복합쇼핑몰 등 현안을 강기정 시장과 협력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표심에 호소했다.

박 의원은 비명(비이재명)계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주자로 이 고문에 맞서고 있다.

/길용현 기자